

경제

1000대 기업 광주·전남 고작 28곳

商議 작년 매출액 상위 발표... 2002년이후 최소

삼성광주전자는 첫 100대 기업 진입

2009년 매출액 1000대 기업에 포함된 광주·전남 업체가 28곳에 그쳐 지난 2002년 순위 발표이후 가장 적었다. 삼성광주전자는 국내 100대 기업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28개사로 전체의 2.8%에 그쳤다. 매출액은 전년(25조68억원)보다 3.6% 감소한 24조1082억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광주 12개 업체의 매출액은 9조 3098억원(전체의 0.5%), 전남은 16개 업체 14조7984억원(전체의 0.9%)으로 광주·전남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년(10조129억원)대비 7.0%나 급감했다.

기업체 수 비중은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가 12위, 전남 11위, 매출액 비중은 광주 11위, 전남 9위

였다. 광주·전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610억원으로 전국 평균 매출액 1조731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매출액이 16조4670억원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이중 강산건조가 19.5%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18.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8%)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매출액은 7조6412억원(31.7%)이었으며 건설업이 1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금융업(6.2%), 도소매업(4.5%) 순이었다.

광주·전남에서 매출액 1위 기업은 4조1851억원의 매출을 올린 현대삼호중공업(전체 73위)이 차지했다.

삼성광주전자 광주1공장(96위)은 무려 25개단을 뛰어올라 100대 기업에 진입했다. 매출도 2조5912억원에서 3조2046억원으로 23.7% 성장세를 기록했다.

에스엔씨(617위)와 금호종합금융(862위)은 1000대 기업에 신규진입했다. 이들 업체의 매출액도 가장 크게 상승해 전년보다 각각 972.1%(343억원→3683억원), 169.6%(971억원→2617억원) 증가했다. 매출 순위로는 연호전자(3365억원)가 883위에서 678위로 무려 205계단 상승했다.

반면 새한철강·해원에스티·삼능건설·한국알프스·메이아울촌 전력·메타넥스코리아·우미건설 등 7개 업체는 1000대 기업에서 밀려났다. 지난해 건설업 구조조정과 미분양아파트 적체로 따라 건설사 2곳이 퇴출된 데다 나머지 기업은 내내의 경제적인 여건 불안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탓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기업 부재로 연관산업 발전이 미흡해 지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 유치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감면 및 규제 완화, SOC 확충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2009년 매출액 1000대 기업 광주·전남기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09순위 | 업체명 | 2009매출액 |
|--------|----------------|-----------|
| 73 | 현대삼호중공업(주) | 4,185,154 |
| 96 | 삼성광주전자(주)광주1공장 | 3,204,650 |
| 130 | 금호산업(주) | 2,413,307 |
| 142 | 한국바스프(주) | 2,182,467 |
| 153 | 금호타이어(주) | 1,894,700 |
| 216 | (주)광주은행 | 1,229,337 |
| 279 | 남양건설(주) | 946,134 |
| 312 | 금호퍼먼비화학(주) | 784,396 |
| 352 | 엘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 682,223 |
| 413 | 백제약품(주) | 588,051 |
| 459 | 대한조선(주) | 516,930 |
| 504 | 엘지엘엠에이(주) | 461,343 |
| 507 | 금광기업(주) | 457,712 |
| 574 | (주)해원도시기스 | 397,282 |
| 617 | (주)에스엔씨 | 368,349 |
| 621 |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 | 365,799 |
| 645 | 조선내화(주) | 353,114 |
| 678 | (주)연호전자 | 336,561 |
| 712 | 케이피엑스화학(주) | 316,918 |
| 758 | (주)호반건설 | 301,006 |
| 814 | 에코닉카본블랙코리아(주) | 279,982 |
| 819 | 대주건설(주) | 277,688 |
| 822 | 케어(주) | 276,641 |
| 835 | 지에스건설(주) | 272,211 |
| 862 | 금호종합금융(주) | 261,782 |
| 872 | 부국철강(주) | 257,785 |
| 879 | (주)대창이엔티 | 256,844 |
| 938 | 남선석유(주) | 239,796 |

(자료: 광주상의)



미국 간 삼성광주전자 세탁기
삼성전자가 광주에서 생산되는 버블 드림 세탁기를 이달부터 북미시장에도 출시한다. 미국 뉴저지의 한 Lowes 매장을 찾은 고객이 판매원으로부터 '파워폼(Powerfoam)' 세탁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기업들 3만명 가까이 뽑는다

전년비 9.4% 증가

올해 하반기 국내 주요기업의 채용 규모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진흥협회(회총)가 6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주요기업의 채용규모(경력포함)는 신입직원 2만6860명을 포함해 모두 2만9419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한 것이다.

하반기에 뽑을 신입직원 가운데 정규직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만5205명으로 전체 신입사원 채용 인력의 56.6%를 차지했다.

경총은 매출 상위 50개사와 상시근

로자수 상위 50개사 가운데 조사에 응한 39개사와 이들 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SK·롯데·두산·한진 등 4개 그룹사 계열사의 채용규모를 이반에 집계했다.

하반기 채용 시기는 신입사원의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9월(61.6%), 12월(16.7%), 10월(11.1%)에 정가 모집할 것이라는 기업이 많았고 경력사원은 대부분 수시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부분의 채용규모가 1840명으로 14.6%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전기·전자 6480명(8.9% 증가), 석유화학 533명(5.5% 증가)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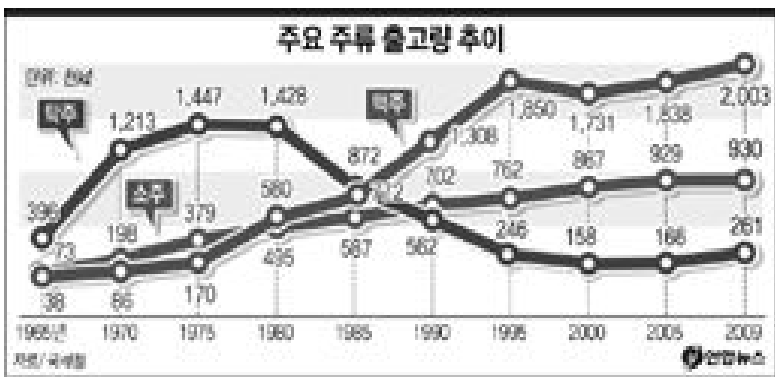
반면 철강·조선은 전년과 비교해 19.4%, 정보통신은 1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채용 증가에 힘입어 올해 전체 채용 규모는 5만9085명으로 지난해보다 15.5% 상승하고 신입사원 채용도 5만3007명으로 15.3% 늘어날 것이라고 경총은 밝혔다.

이 가운데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2만9836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19.4%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경기가 호황 국면이고 각 기업이 미래 주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항공사 '국제카르텔' 피해 사상 첫 소비자 집단소송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미국,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과 함께 전세계 21개 항공사에 '국제카르텔에 의한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또 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국내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특히 이번 항공사 국제카르텔 담합 사건은 우리 경쟁당국이 세계 최초로 정식 심판결을 거쳐 일괄 처벌한 대규모 사건으로 주목받았었다. 이번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되면 증권이외의 분야에서 제기된 첫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 |
|---------------|-------------------|
| ▲ 코스피지수 | 1,684.94 (+9.57) |
| ▲ 코스닥지수 | 487.41 (+1.26) |
| ▼ 금리 (국고채 3년) | 3.84% (-0.01) |
| ▼ 원·달러 환율 | 1,222.30원 (-1.10) |

작년 성인 1인당 소주 68병 마셨다

막걸리 소비 57% 급증했다.

'서민술'인 희석소주의 경우 2009년에 92만9926킬로그램을 기록했다.

10년전과 비교해 출고량이 1.5%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 2001년 78만여 킬로그램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60ml 소주병을 기준으로할 때 작년 한 해동안 성인 1인당 연간 68.26병을 소비한 셈이다.

막걸리도 10년전과 비교할 때 출고가 56.9% 늘면서 '막걸리 르네상스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점검단, 광주 중소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점검단이 6일 광주 첨단산업 단지에서 중소기업 점검단 및 애로사항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점검단은 이날 첨단산업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데 이어 조별로 입주기업들을 방문했다. 점검단은 7일까지 광주지역 산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기가 분명히 회복세지만, 지표에만 의

존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현장중심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점검단은 기재부와 지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실무자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첨단산단을 비롯해 반월·시화, 남동, 구미 등 전국 6개 광역권 11개 산업단지와 인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석래(75)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7일 건강상의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건강 정기검진에서 담낭에 종양이 발견돼 6월 이후 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회복을 시도했으나 회장직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07년 3월 20일 제31대 전경련 회장에 취임한 뒤 2009년 유임돼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남겨뒀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무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원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매일동 준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송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별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육시설
- 마복동 도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령실 뒤편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대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대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층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나주남평 토지 매매
 - 종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변, 잡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 건물 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쌍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1층상가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대가 7억8천만원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쌍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대가 12억 5천만원
- 공장 창고 건물 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도가 7억 8천만원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원장,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중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싱글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담여고 후문 앞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UP 됩니다!

공공 업무용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본사의 외벽방수 전용제품인 **반트**와 **하우징코디**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면,

- 특허받은 국내 유일의 외벽방수공법이 건물수명을 연장
- 다양한 컬러 마감으로 획기적인 리모델링효과
- 때가 타지 않는 고풍적 코팅으로 새집효과 지속
- 세라믹 특수단열소재로 냉난방비 절감 [출생]

반트가 아닙니다!
"반트" 및 "하우징 코디" 제품은 본사만의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독일 원장제 외벽 전용 특수 제품입니다.

30여가지의 다양한 컬러매진
1996년도 많은 박람회 참여
1998년 제1회~3회 대전광역시에서 1등 수상

간단한 물걸레질만으로도
외벽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기전용 시공현
신기전용 시공후

친환경 & 탄력방수
단열 & 리모델링효과

사공현

한국건설시공부 (원공본)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지사
홍/매/이/지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사 (061) 284-0485 순천지사 (061) 726-0482
여수지사 (061) 683-0485 광양지사 (061) 795-0485
(062) 511-0444, 010.6603.0405